

지역 소식통

부안군 지역발전협, 문화
군민운동 캠페인 전개

부안군 지역발전협의회(회장 서중훈)가 21일 변산해수욕장 등 관내 해수욕장에서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7월 9일 일제히 개장한 부안 해수욕장을 찾아주는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해수욕장을 보여주기 위해 회원 20여명이 쓰레기 줍기를 통해 깨끗한 부안 이미지를 쇄신을 위해 노력했다.

회장 서중훈은 "2023년에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캠프를 앞두고 영외과정활동장으로 사용될 예정인 해수욕장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다시 찾아오고 싶은 부안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부안지역발전위원회는 관내 주요 관광지와 영외과정활동장을 중심으로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군민 안전지킴이 역할 특출

고창군이 운영중인 CCTV통합관제센터가 군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지킴이 역할을 특출하고 있다.

빈틈없는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범죄예방 신속한 범인 검거, 실종자 발견, 쓰레기투기, 각종 재난 대응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창군 통합관제센터는 2015년 1월 156개소에 313대로 시작했다. 올해 7월 현재 367개소 1160대의 CCTV를 관제요원 11명이 4주 2교대로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실제 실종 치매어르신을 찾고 뺑소니 차량타격을 검거하는 등 범죄 해결 일등 공신으로 군민들을 소리지없이 지켜주고 있다.

군은 올해도 총 2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 도로방범 등 87개소에 설치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9900만원 예산으로 마을방범 CCTV를 32개소에 80대를 설치 완료하여 농산물 절도 및 도난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 진실규명'

심덕섭 고창군수,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장 면담

심덕섭 고창군수가 "한국전쟁당시 진행된 고창지역 민간인 피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20) 오전 심덕섭 고창군수와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장이 군수실에서 고창지역 과거사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과거사위(2기)는 지난해 10월 고창 민간인 희생 사건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고창지역 진실규명사건은 군경에 의한 집단희생사건 200건 적대세



역사건 197건 총 457건이 접수되어 415건이 진행 중이며 42건이 재신청 각하 처리됐다. 특히 고창지역은 전북 전체 사건의 45.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12월9일

까지 진행된다.

신청인은 신분증과 피해자와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기타 조사 참고자료를 지참해 고창군청 2층 율령행정과나 진실화해위원회(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6층)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심덕섭 군수는 "신청 홍보를 강화하고 군에서도 진실화해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고창지역의 피해 유족분들이 조금이나마 진실이 규명되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들이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교육생 전원 ITQ 자격 취득

정읍새일센터, 현장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앞장'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들이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읍새일센터는 지난 19일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멀티사무 마스터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모집한 교육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 여성문화관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멀티사무 마스터 양성과정'은 기업 현장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개설된 직업 교육 훈련과정이다.

지난 4월 4일 개강해 7월 19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교육은 정읍지역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기업의 업무를 다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실무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수료생 전원이 ITQ(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을 취득해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를 익힘으로써 큰 효용을 얻었다.

또한, 교육생들은 전산회계 1, 2급 시험에도 도전 중이며, 교육생 중 5명은 조기 취업에 성공해 여성 취업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새일센터 관계자는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약 74%의 취업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여성 취업의 든든한 수호천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새일센터는 출산·육아·가사부담 등의 사정으로 경력에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읍면동 방문, 주민 여론 수렴 · 애로 청취 등 현장 행정

이학수 정읍시장, 시정발전 · 현안 해결 위한 소통행정... 지역발전 가속화

이학수 시장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시민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발 빠른 지역 현안 파악과 시민 소통을 위해 23개 읍·면·동 순회 방문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시정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행정 일환으로 읍·면·동 기관단체장 이·통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소통의 폭을 넓혀 시민이 공감하는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정읍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으뜸 도시로 조기 정착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수성동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21일 감곡면을 방문



이학수 시장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시민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상호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 개선과 대시민 친절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고품질 쌀 생산 위한 벼 이삭거름 적기 시용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최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이삭거름 적기·적량 시용과 병해충에 대한 철저한 방제를 농가에 당부했다.

이삭거름은 벼 이삭이 줄기 속에서 자라나는 시기에 효과적인 웃거름이다. 일반벼의 경우 이삭패기 15~25일 전(이른 이삭 1~1.5mm)에 주는 것이 좋다.

또 지역 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신동진은 도복 방지와 미질 향상을

위해 출수 15일 전에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올해에는 기상 여건과 출수가 판단에 따라 예년에 비해 2일가량 출수가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시용량은 10a당 N-K 복합 비료로 11~12kg을 주고, 요소비료와 열화加里 비료를 각각 줄 경우엔 요소 4~5kg과 열화加里 3~4kg을 기준으로 잘 혼합해서 준다.

또한 일 색이 짙은 논과 도열병 발

생 논, 기온이 낮거나 장마가 계속될 때는 질소시비량을 20~30% 적게 주거나 생각하고 대신 칼리비료를 20~30% 증시해 쓰러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삭거름을 주는 시기가 너무 빠르면 도복에 약하고, 늦으면 이삭이 출수된 후 이삭목과 벼알에 질소 성분 많아져 도열병 등의 병해충 발생이 높아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하반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

부안군은 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포럼 및 부안군 사회조사 결과를 정책의 수요에 따라 전세 대출금 이자와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하반기 모집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19세~39세(1982년생~2002년생)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150% 이하(월세), 소유 주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매월 최대 10만원이다.

거주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

택방상 주택(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월세)이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오는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부안군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부안군이 자격요건을 심사해 12월에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선우 미래전략담당관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생활기반 지원을 도모하겠다"고 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